

‘운동주 서거 80년, 시비 건립 30주년 운동주 추도식’ 2부 강연회

2025년 2월 16일

운동주를 말하다

도시샤대학 학장 고히라 가쓰히로

운동주의 생애와 그에 얽힌 ‘역사’(전쟁과 양심 개념 등), 운동주의 시와 그에 얽힌 ‘세계’(올림이 있는 시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운동주를 하나의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를 구상한다.

1. 서문 - 도시샤대학과 한국의 관계

1) 교육

도시샤대학은 한국에서 461 명의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본교 전체 유학생 1375 명 중 33.5%를 한국 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내 협정학교는 연세대학교를 필두로 10 개교가 있으며, 교육적 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다.

2) 연구

연구 측면에서는 도시샤 코리아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연구자 간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센터는 국제적인 연계도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본교의 파트너 대학인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코리아 연구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다.

3) 운동주 시비 건립

운동주 서거 50주년인 1995년, 운동주 시비 건립에 도시샤가 협력을 했다. 운동주 시비 건립 운동은 ‘도시샤 교우회 코리아클럽’(현 ‘도시샤 코리아동창회’) ‘운동주를 기리는 모임’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고 그 간절한 바람을 당시 도시샤 총장과 도시샤 이사장, 도시샤 대학장이 받아들였다. 시비 건립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2. 운동주와 나

내가 한국에 처음 간 것은 서울 올림픽(1988년) 직후였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도시샤대학 대학원 신학과 재학 중 한국에서 와서 한일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있던 조재국 씨를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조재국 씨는 후에 연세대 교수가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세를 지고 있다. 학창 시절에는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

1996년부터 도시샤대학 신학과에서 교편을 잡게 된 후, 일본 기독교사를 전공한 동료 하라 마코토 교수를 통해 한국과 운동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키워갔다. 하라 교수는 한일 관계의 역사에 정통한 분이였다. 나는 하라 교수와 학생들과 함께 한국 스테디

투어에 수 년 연속으로 참가했고, 매년 연세대에 있는 운동주 시비와 기념관을 찾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운동주 시인을 도시샤대학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수업 시간에 운동주 시인을 소개해 왔다.

2024년 4월에 학장으로 취임하여 5월에 릿쿄대학과 상호 협력 및 연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릿쿄대학 총장인 니시하라 렌타 교수는 기독교를 전공하고 한국 및 운동주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 두 사람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두 대학을 이어주는 인물인 운동주에게로 향했다. 또한 운동주와 관련된 연세대학, 릿쿄대학, 도시샤대학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3. 전쟁과 나 - 운동주를 이야기하는 배경

(1) 개인적인 경험

히로시마 원폭 체험의 증언자였던 할아버지(고하라 요시타카)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았다. 이하, 고하라 요시타카 ‘작은 섬의 큰 비극’(다케우치 요시오 편<얼었던 여름의 기억 - 히로시마 50년의 증언> 기라라서방 1995년, 69-123쪽)에서 인용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 매일 섬을 방문했다. 부모들이 찾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갔다. 어떤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기미가요’를 부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왜 죽어야 하나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라는 비통하고 안타까운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둔 아이들……. 그래, 말 그대로 너희 아이들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 전쟁 중 불편함과 배고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낸 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 가야 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측은하여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麻酔なしで少女の左手を切断 (小原画)

이 아이들을 죽게 만든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전쟁을 그만두게 하지 못한 것도, 전쟁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죽기 직전까지 ‘기미가요’를 부르며 죽어간 아이들을 만들어 온 교육의 책임도 우리 어른에게 있다.

이제 나는 전쟁의 공포와 무의미함을 젊은이들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한다. 그것이 전쟁 경험을 계승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같은 책, 95~97 쪽)

이곳에 이공 전하(이우 왕자)에 대해서도 적어두고 싶다. 이 전하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밖에 세워진 ‘한국인의 비’ 명문에 나오는데, 당시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어 있었고, 조선의 왕족 중 한 명인 이 전하가 주고쿠 제 2 총군 참모로서 히로시마에서 피폭되어 사망했다.

1980년 5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53회 모임에서 니시무라 대장이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이라고 말하면서 1920년 8월 6일 고귀한 분(이우 왕자)을 장교숙소(핫토리 중위)에 수용한 것, 8월 8일~9일 사이에 사망한 것, 사후 처치도 한 것, 주고쿠군 총사령관 하타 순로쿠 중장이 자주 병문안을 왔고, 이 전하가 돌아가신 후 시신을 조선에 비행기로 보낸 것 등을 이야기했다. (훗날 주고쿠방송이 이 일을 취재했을 때, 니시무라 대장은 방송국 제작부의 질문에 답하며 편지를 썼다. 그중 니시무라 대장은 이 전하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전하의 부관인 요시나리 중령이 원폭 피해 당시 이 전하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는 내용이다. 요시나리 중령은 그 직전에 감기에 걸려 이 전하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책, 100 쪽)

【참고】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1970년 건립, 1999년 평화기념공원 내 이전)

건립 목적 : 강제노동 등으로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동포들의 위령과 다시는 원폭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비문(뒷면) 일본어 번역

“유구한 역사를 두고 우리 민족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다른 겨레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러나 5천 년의 기나긴 민족사를 통해서 여기 모신 2만여 위령이 겪으신 것 같은 슬프고 원통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 없는 슬픔을 뼈저리게 맛본 것이 바로 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였고, 그중에서도 정점을 찍은 것이 원폭 투하의 비극이었습니다. ...”

→ 윤동주·서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후술)



2)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전쟁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 일신교 세계 및 근현대 일본의 전쟁 연구를 자신의 연구의 일부로 삼아 왔다.

【참고】 고히라 가쓰히로<일신교란 무엇인가 -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알기 위하여> 헤이본샤 신서, 2018년. 고히라 가쓰히로<종교의 폴리틱스 - 일본 사회와 일신교 세계의 만남> 고요서방, 2010년. 호리에 노리치카 편저<종교와 사회의 전후사> 도쿄대학 출판회, 2019년 (집필분담: 고히라 가쓰히로 ‘기독교와 일본사회와의 갈등과 공명 - 종교적 마이너리티가 담당하는 평화주의’).

· 독일 유학(1989~91 년)을 계기로 독일과 일본의 전쟁 책임 이해에 관한 비교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진행해 왔다.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를 키우고, 더 나아가 보편성을 가진 더 큰 기억의 문화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오카 히로토 <망각에 저항하는 독일 - 역사교육에서 ‘기억의 문화’로> 오쓰키서점, 2012 년, 139 쪽).

3) 전쟁 · 망국과 시

성경에서는 시와 노래를 통해 조국을 떠올린다. 다음은 시편의 한 예이다. 신 바빌로니아에 의해 조국에서 쫓겨나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자신들이 당한 굴욕을 비탄하는 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구약성경 ‘시편’137:1-4)

4. 율동주의 시

1) 시의 역동성과 문학적 기법

· 은유(Metaphor)

더 나은(깊은) 이해를 위해 어떤 것(알려진 것)으로 다른 것(알려지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훌륭한 은유는 응고되고 얼어붙은 타성적 의미를 활성화하고 의미를 재배치한다. 예: ‘인생은 여행이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신약성경 사도행전 9:18-19). 예수의 비유(하나님의 나라는 ~와 같다).

· 환유(Metonymy)

환유는 사물과 사물의 인접 관계에 주목한다. 예: ‘할리우드’는 영화 산업을 가리킨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마태복음 6:26,28)에서 예수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듣는 이의 의식과 지각을 향하게 한다. 그것은 영화의 클로즈업 기법과도 비슷한데, 일상에서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고 있던 사물의 디테일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세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체를 인상적으로 부각시킨다. 여기서 작은 것, 하찮은 것의 대표로 언급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역설적으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 전체성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은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6:25-34)

성경은 작은 것(사건) 속에 작용하는 큰 힘(사랑)을 이야기하며, 상식을 뒤집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예수의 말씀과 에피소드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섬세하고 혁신적인 정신을 운동주의 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2) 운동주의 시에서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서 집니다.
도로가 들여다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 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939·9)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김시중 편역, 이와나미문고, 2012, 10-11 쪽)

십자가

쫓아오든 햇빛인데
지금 敎會堂 꼭대기
十字架에 걸리었습니다.

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鍾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웠든 사나이,
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처럼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목아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5·31)

(같은 책, 23-24 쪽)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있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11·20)

(같은 책, 9 쪽)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비건립위원회 편 <별을 노래하는 시인 - 윤동주의 시와 연구>산고칸,
1997년, 13쪽)

쉽게 씨워진 詩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六疊房은 남의 나라,

詩人이란 슬픈 天命인줄 알면서도
한줄 詩를 적어 볼가,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學費封套를 받아

大學 노트를 끼고
늪은 教授의 講義 들으려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만 다만, 홀로 沈澱하는 것일가?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씨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六疊房은 남의 나라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의 握手.

(1942·6·3)

(같은 책, 42~44 쪽)

3) 시와 정치·역사 - 부조리에 대한 대응

· 운동주 시의 정치성

확실히 운동주의 시 작품은 시기나 시대적 상황과는 벗어난 정치에 무관심한 작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던 사람들과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애뜻함, 다정함이 체온을 동반하며 스며드는 작품들입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시인이 살았던 시대의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민낯을 부각시키고 있는 의지적인 반증이기도 합니다. 군국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 모두 전쟁 찬양과 황위 선양에 열을 올리던 시대에 동조할 기미가 조금도 없는 시를, 그것도 금지된 언어로 꺾꺾 눌러쓴다는 것은 반대로 매우 정치적인 것이며, 식민지 통치를 강요하는 쪽에 통용되는 말을 스스로 끊는 반황국신민적 행위의 결의를 동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주의 시는 시대와 무관한 정감 어린 시였기 때문에 치안유지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오히려 안고 있는 시이기도 했습니다.

(김시중 ‘해설을 대신하여 - 운동주·생과 시의 광채’, 같은 책, 163 쪽)

·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 이재민을 위해 쓴 이승신의 시

운동주 시비 건립(제막식) 직전에 한신 아와지(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다(1995년 1월 17일).

식민지 지배와 전쟁은 국가에 의해, 자연재해는 지진, 쓰나미, 폭우 등 자연의 힘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인과 배경은 다르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조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시는 부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비탄을 향한다.

평화

쓰러린 역사를 다 잊을 순 없지만

양금 내려놓고

성숙한 평화를 기원하다

(이승신 <그대의 마음 있어 꽃은 피고 - 이웃과 재해지의 친구에게 보내는 192편의 시> 아스카신사, 2012년, 143 쪽)

관계

아픈 역사 있어

그대 아픔 껴안을 수 있나니

새로이 짚어 트는 우리의 관계
(같은 책, 145 쪽)

5. 운동주와 양심

1) 운동주가 살았던 시대

1940 년 양심비 건립. 도시샤는 1935 년 이후 군부의 개입 등으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운동주는 도시샤 재학 중 마치 ‘양심의 자유’를 탐구하듯 한글로 시를 쓰는 활동을 이어갔다.

여기서는 유교적 양심이 아닌 저항의 사상적 근거로서의 양심(conscience)을 탐구한다.

【참고】(강연) 고히라 가쓰히로 ‘전쟁과 도시샤 - 기독교주의 학교의 고뇌와 교훈(1930~ 1945 년)’, 도시샤대학 양심학연구센터 주최 연속 심포지엄 ‘도시샤 150 년의 역사에서 전망하는 미래로의 도전’ 제 4 회, 2024 년 12 월 20 일(<https://ryoshin.doshisha.ac.jp/jp/activity/20241220/>)



2) 국가에 대한 순종인가, 반역인가 - 긴장 속에서 보이는 ‘양심’(conscience)

메이지 시대 이후, 특히 전쟁 시대의 본질적인 질문은 ‘국가에 대한 순종인가, 반역인가’였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 일본에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보편적인 역사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한 예로 ‘양심의 종교’로서의 기원을 가진 프로테스탄티즘(넓게는 기독교)을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질서에 순응하는 유교적 ‘양심’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의 깊은 신념에 뿌리를 두고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양심’(conscience)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 양심적 병역거부).

• 보름스 제국의회(1521 년)에서의 루터의 변론

저는 성경을 통한 증거나 명백한 이성적 논박이 없는 한 제가 인용한 모든 글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류와 모순에 빠져있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 신약성경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3:1)

• 김지하 ‘양심선언’(1975) (※ 저항시인 김지하는 가톨릭 신자)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양심 있는 이웃들은 우리의 외롭고 고난에 찬 투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수난에 대한 열정이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 민중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 모두의 건투를 위하여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1975년 5월

김지하

(김지하 외 <양심선언> 이데 구주 편역, 오쓰키서점, 1975년, 44쪽)

6. 끝으로 - 운동주에 대한 도시사대학 명예 문화박사 학위 수여

지금도 한국에서 많은 고등학생과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도시사대학 운동주 시비를 찾고 있다. 반면 본교 학생들 중 운동주 시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2월 16일 운동주 서거 80년·시비 건립 30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2025년 150주년을 맞이하는 도시사대학은 운동주에게 도시사대학 명예 문화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2014년 12월에 결정했다. 본교로서는 고인에 대한 명예학위 수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논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한다.

도시사의 역사 속에 전쟁의 시대가 있었고 많은 학생이 그 시대의 희생자가 된 사실을 잊을 수 없다. 2025년 일본 사회가 전후 80년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본교는 그 역사 속에 운동주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한 학생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운동주 관련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본어 문헌

우지코 쓰요시 <시인 운동주로의 여행 - 나의 한국·조선 연구노트> 료쿠인서방, 2002년.

일본 기독교단 출판국 편 <신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기독교시인·운동주> 일본 기독교단 출판국, 2005년.

운동주 시비건립위원회 편 <별을 노래하는 시인 - 운동주 시와 연구> 산고칸, 1997년.